

나주 '스마트 팜' 혁신밸리 추진

나주시가 1차 산업인 농업에 정보통신 기술(ICT)을 접목시킨 지능화된 농장인 '스마트 팜' (Smart Farm) 조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예비계획서를 전남도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 팜은 1차 산업인 농업에 ICT (정보통신기술)와 IoT(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을 의미한다.

농작물 재배 시설 온도 및 습도, 햇빛

빅데이터 기반 최적 생육환경 자동 제어 40ha 1,800억 규모...예비계획서 제출

의 양 등을 분석, 원격조종을 통해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판로확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노동비 절감, 병해충 질병 감소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스마트 팜 혁신밸리는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혁신성장 8대 선도과제인 '스마트 팜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하

는 사업이다. 스마트 팜 규모화·직접화,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기능을 갖춘 산업단지로서 오는 2022년까지 전국 4개 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시가 전남도에 제출한 예비계획서에 따르면, 전체면적 40ha, 사업비 1,8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팜 혁신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청년보육 및 실습농장, 청년임대 스마트 팜, 기업연구 실증단지, 특화시설 및 생산단지 스마트 팜, 에너지 공급시설 등의 스마트 팜 핵심 시설이 들어선다.

나주시는 이번 공모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원에 단지로서 농업 분야 파급 효과가 높다는 점과,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강점을 내세웠다.

또, 청년 농업인 양성 요람인 호남원에 고등학교를 비롯해, 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식품유통공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업 관련 공공기관 간의 공동기술개발, 상용화, 실증까지 가능한 복합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장점을 어필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스마트팜 사업부지 면적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기본계획 수립 승인절차를 거쳐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현장평가와 대면평가 등의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이달 내 대상 시·군 1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7월 13일까지 농식품부에 선정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나주=이재순 기자



담빛수영장이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4일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오는 18일부터 정식 개장한다.

담양 '담빛 수영장' 시범운영

담양국민체육센터 '담빛수영장'이 정식 개장을 앞두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담양군은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4일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오는 18일부터 정식 개장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30일 군민의 여가활동과 복지 증진을 위해 준공된 담빛수영장은 최근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험가동을 마쳤다.

시범운영 중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공휴일 제외)다.

정식 개장일인 오는 18일부터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휴관은 매주 월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 제외), 대체공휴일이다.

담양군은 정식 개장에 맞춰 수영장 이용 강습화원을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오는 18일부터 매주 화·수·목·금요일 매일 4회 강습할 예정이다.

수영장은 강사 2명 및 안전요원 4명이 배치된다. 강습은 새벽반, 오전반, 저녁반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설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담양국민체육센터(061-380-2626)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장동원 기자

"농업교육 농업인이 직접 편성해요"

장성 '특목 교육 공모제'...재배기술 상향평준화 기대

장성군이 농업인 입맛에 맞는 농업 교육을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장성군은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농업인들이 스스로 편성, 실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특목(talk-talk) 교육 공모제'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목 교육 공모제'는 관 중심의 교육 틀에서 벗어나 교육 내용은 물론, 강사, 강의 시기를 비롯해 교육과 관련한 모든 것을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편성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한 과정당 4~6회 강의를 통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례·토론·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목 교육 공모제'를 통한 농업 교육은 수준별 강의를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집중 강의를 실시하기 때문에 농업 기술을 심도 깊게 익힐 수 있다. 전체 교육의 80% 이상을 작목별 우수 농장에서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한다.



장성군은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농업인들이 직접 편성해 실제 교육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특목 교육 공모제'를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4월3일부터 2주간 농업인 연구회·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에 대한 공모 신청을 받았다. 총 5개 단체(사과, 체리, 양봉, 감자, 정보화)가 신청했다.

장성군은 '특목 교육 공모제'를 통한 농업 교육이 작목별 재배 기술을 상향평준화해 장성군의 농업기술을 비약적으로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과 작목 교육에 참여하는 이기대씨는 "사과 밀식재배 방식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영농정보를 공유하는 학습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가 제공돼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내고장 사람들



조재운 나주 시장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10시30분 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나주시 시민환경 개정을 위한 추진위 회의를 개최한다.



김명원 영광 군수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8시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실과소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김경호 화순 군수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8시4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현안을 논의한다.

화순시네마 관객객 2만명 돌파 16~17일 100명 팝콘 이벤트

지난 2월12일 개관한 작은영화관 '화순시네마'가 지난 8일 누적관객객 2만명을 돌파했다. 전국 30여개의 작은영화관 중 빠른 속도다.

화순군은 도시지역보다 저렴한 관람료, 편안하고 쾌적한 극장시설, 편리한 접근성 등을 증가 추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화순시네마는 '2만명 돌파 이벤트'로 오는 16일과 17일 오후 2시부터 100명의 방문객에게 팝콘을 제공한다. 또 무작위로 3명에게 영화관람 티켓을 2매를 증정한다.

화순시네마는 개관 이후 처음으로 3D 영화 '주유기 월드'를 매일 1회씩 상영 중이다.

작은영화관은 홈페이지(<http://scinema.org/>)를 운영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작은영화관')을 통해 정보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다.

/화순=서호령 기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대상 선발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청년창업농 1만명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선발(전국 400명, 전남 60명)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종 선발자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을 비롯해 후계농 자금지원, 기술 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업법인 인턴 등 관련된 연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영농정착 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연차별로 1년 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

년차 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선발은 스마트팜 등 농업의 영역 확대와 청년 농업인 성장사태 창출 등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농업에 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8명 선발과 정에서 30명이 신청해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추가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농업기술센터(061-350-48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광=곽승순 기자

농수특산물 발굴 등 판로 확대 36개 업체 70여개 품목 대상

장성군은 최근 장흥군민회관에서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한 '찾아가는 품평·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품평·상담회는 지역 농수특산물 발굴·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대형유통업체와 사업을 연계하고 있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장성군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번 품평회에는 장흥지역 36개 업체가 표고버섯차·음료, 무산김, 냉장해조류, 미역귀샐러드, 감부각, 쌀 요구르트



장성군은 최근 군민회관에서 우수 농수산물 판로 개척 및 멘토링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품평 상담회를 개최했다.

등 70여개 품목을 출품했다. 장성군은 농특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담에 참여한 한 업체 대표는 "대기업 유통전문가들의 상담과 전문가의 기술 컨설팅으로 마케팅과 제품 개발에 도움이 얻었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장흥 찾아가는 품평·상담회 개최


클릭! 고향 소식

나주 여성범죄예방 간담회

나주경찰서는 최근 시청 안전총괄과에서 여성불안환경 개선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범죄안전 실태점검을 통해 선정된 취약지역의 안심귀갓길 CCTV 개선, 공중화장실 비상벨, 골목길 로고젝터 설치 등 대 여성악성범죄 예방차원의 안심생활 환경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종열 서장은 "여성 범죄 예방활동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영광 소년체전 입상자 격려

영광군은 지난달 열린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관내 초·중학교 선수단을 찾아 격려했다. 영광군 선수단은 체조에서 금 5개와 은 3개, 동 2개를, 검도에서 은 1개, 태권도에서 은 1개를 획득하는 등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합해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김명원 군수 권한대행은 "어린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출전해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드높여줘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영광=곽승순 기자

포스코 프렌즈봉사단 매실따기

포스코 광양제철소 프렌즈봉사단은 최근 진원면 사평마을에서 다문화가정 매실따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프렌즈 봉사단 30여명은 일손이 부족한 한미연씨(베트남) 다문화 가정 매실따기에 나섰다. 이번 봉사활동은 포스코1%나눔재단지원사업 협력기관인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리며 매실 수확기 다문화가정의 일손 부담을 덜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광양=정경화 기자

함평 결혼이민자 면허 취득

함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함평경찰서가연계해 진행했던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과정 참여자 9명이 지난 8일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함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취업처 연계, 취업지원교육 등 다양한 구직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기영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이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